

류충희, 『조선의 근대와 윤치호: 동아시아 지식인 에토스의 변용과 계몽의 에크리튀르』 도쿄대학출판회, 2018 년 (柳忠熙『朝鮮の近代と尹致昊: 東アジアの知識人エトスの変容と啓蒙のエクリチュール』東京大学出版会、2018 年)

책 개요:

이 책은 윤치호(1865~1945)의 인생 및 사상의 형성과 그 변화를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에토스의 형성과 변용의 한 예로 살핀 것이며, 조선의 근대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를 재고해 본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근대 전환기의 동아시아 지식인 에토스에 주목하여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의 ‘사상’, ‘구상 및 실천’, 그 ‘변용’을 문제로 삼아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문제를 검토했다.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에토스는 한학적 소양 및 유학적 사상에 근거한 사대부층의 특성과 자국어 리터러시의 소양 및 계몽사상에 근거한 시민층의 특성이 혼재하는 것이며, 양자가 상호 연계하고 길항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변형되어 가는 것이다. 윤치호의 사상의 변화, 조선의 지식인들의 해외경험, 계몽의 에크리튀르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윤치호의 인생과 사상이 당시의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한 문화 및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변용된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윤치호의 사상의 변화에는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리티라는 문맥에 근거한 ‘동아시아/조선의 근대’의 다이내미즘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선 지식인의 한 예를 통해서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에토스의 특징과 그 변용에 대한 이해를 제시했다.

저자 약력:

1980 년 한국 대구 출신. 2006 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비교문화연계전공 졸업. 2008 년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협동과정 석사과정 졸업. 2011 년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석사과정 졸업. 2016 년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학술 박사.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도쿄대 다문화공생·통합인간학(IHS) 프로그램 특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후쿠오카대 인문학부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다. 주요 업적으로는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한문맥과 근대 일본』(공역, 현실문화, 2010 년, 한국어), 「다카하시 조선문학론의 근대학술사적 함의: 다카하시 도루의 「朝鮮文学研究—朝鮮の小説」(1932)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 42 집(공저, 2012 년, 한국어),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공역, 푸른역사, 2016 년, 한국어) 등이 있다.

[관련 URL] <http://www.utp.or.jp/book/b375469.html>